

아비뇽서 만나는 '사찰 단청의 美'

파리 길상사, 23일까지

유럽 대표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서 한국 전통 사찰 단청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파리 길상사(주지 해원)는 단청 전문 연구단체인 도화원(대표 구본능)과 함께 1월 12~23일 프랑스 아비뇽 시립 미디어텍(Ceccano)에서 단청 전시회를 개최한다.

“한국 사찰 단청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조선시대 사찰 단청을 대표하는 통도사 영산전, 미황사 대웅보전, 개암사 대웅보전, 내소사 대웅보전 등 7개 사찰의 단청을 모사한 56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기간 중에는 전통적인 기법과 재료로 단청 작품을 직접 시연·공개하며, 아비뇽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단청을 체험할 수 있는 감상회와 전통 미술과 문화의 역할에 관한 강연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통도사 등 단청 모사 작품 전시 한국 사찰 아름다움 세계에 알리

이번 전시회에 대해 구본능 도화원 대표는 “단청 문양과 그림들에는 건축물의 외형의 화려함이나 기술의 완벽함보다는 성스럽고 소중할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을 중시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미학이 오롯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오래된 단청을 마음으로 천천히 읽어 보면 기분 좋은 감동이 전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시회를 기획하고 조직한 파리 길상사 주지 해원 스님은 “사찰 단청을 주제로 아비뇽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의 사찰 미술에 담긴 아름다운 미학을 소개하고 싶다”면서 “또한 상호간의 문화적 공감과 이해의 계기가 마련돼 지속적으로 한국불교미술의 숨겨진 보물들이 예술과 문화의 나라 프랑스에 널리 소개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통도사 영산전 대량대리초

따뜻한 '감성 카툰', 불교를 품다

서주 스님, 2월 5일까지 부산 쿠무다 갤러리서 첫 개인전



“다워니 발원이 귀명례삼보”를 주제로 부산 쿠무다 카페 갤러리에서 카툰 전시회를 여는 서주 스님.

카툰은 응축의 미학이 담겨있다. 작가의 사상과 메시지를 단 한 장의 그림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응축의 아름다움이 내재된 카툰은 선(禪)의 미학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예술 장르다.

현재 용인 포교당에서 정진 중인 서주 스님이 보여주는 카툰들도 그렇다. 천진

한 표정의 동자승이 찻잔을 들고 미소를 짓는다. 하늘 위로는 밤하늘의 별이 영롱하다. “별이 보이고, 차는 뜨겁네.” 수행 중 잠시 한담을 즐기는 자적함이 느껴진다.

또한 수많은 세월호의 노란 리본 앞에 좌정하신 부처님 앞에서 동자승이 삼배의 예를 올린다.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있는 세월호의 아픔을 보듬는 부처님의 대자대비함이 단 한 컷의 카툰 안에 담겨 있다.

이 같은 서주 스님의 카툰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2월 5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카페 갤러리에서 열린다. 그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품을 올렸던 스님에게는 첫 개인전이기도 하다.

전시 주제는 ‘다워니 발원이 귀명례삼보’로 ‘다워니’는 서주 스님의 카툰에 나오는 선제동자 캐릭터이다. ‘다워니’는 수 많은 근원을 의미하는 ‘다원(多願)’에서 비롯됐으며, 서주 스님과 친분



별이 보이고, 차는 뜨겁네

수행 틈틈이 그린 카툰 40점 전시 천진물 '다워니' 보면 절로 미소가 수작업 위주... 아날로그 감성 담겨 3월 국제불교박람회서도 작품 출품

있는 어른 스님이 직접 이름을 지었다. 또한 ‘발원이 귀명례삼보(發願歸命禮三寶)’는 <천수경>의 한 구절에서 가

져왔다. 선제동자의 구법과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이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다. 서주 스님은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다. 다만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있어 대학 학보사에서 만평을 그렸고, 출가해서도 운문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며 계간지 <운문>에 ‘상(想)’이라는 주제로 카툰을 연재했다.

스님은 “전문 작가라고 불리기에 매우 부족하다”면서 “카툰이라는 장르를 통해 불교를 알릴 수 있다면 이것도 포

교와 수행의 방편이라고 생각해 그림을 그려왔다”고 말했다.

선제동자 ‘다워니’를 중심으로 한 서주 스님의 카툰이 가지는 강점은 ‘따뜻한 감성’이다. 컴퓨터가 아닌 수작업으로 작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연필과 먹선이 보여주는 질감과 수채화의 번짐, 파스텔이 만든 아련함은 스님이 전하는 메시지와 만나 관객들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한다.

서주 스님은 “디지털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연필로 그리는 그림을 가장 좋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다”며 “미약한 재주로 그린 카툰을 보고 사람들이 부처님께 진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주 스님은 이번 전시에 이어 3월 24~27일 열리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도 ‘이와 같이 보았다’의 멤버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051)701-7559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으로 그려낸 설악의 '진면목'

임채욱 작가, 3월 22일까지 아라아트센터서 전시회

설악산은 한국인에게 여러 의미를 가진다.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산이면서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았던 추억의 장소 중 하나였다. 빼어난 경관으로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그 속살을 파헤쳐보면 다른 면모들을 만날 수 있다.

한국의 산들을 카메라에 담은 임채욱 작가가 오는 3월 22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개최하는 사진전에서는 설악이 감춰놓은 진면목들을 만날 수 있다.

“인터뷰 설악산- 아름다움에서 무한으로”가 전시회의 주제인만큼 구성도 마치 설악산과 인터뷰하듯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다.

전시는 △설악이 열리다 △설악에 들다 △설악이 펼쳐다 △아름다움에서 무한으로 등 4개 파트로 구성됐으며, 1층부터 지하 4층에 걸쳐서 진행된다. 전시 작품은 총 60여 점. 사진과 설치, 영상 작품까지 다양하다.

이중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아름다움에서 무한으로’이다. 설악의 속살을 파고들면 궁극에 이르는 곳아 봉정암이라

고 작가는 말한다. 실제 전시 작품 중 가장 대작인 ‘봉정암 부처바위’는 크기가 8m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임 작가는 “그간 설악산은 경관을 중심으로 조명됐다. 이제는 역사·문화·사상 등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무한을 희구하는 사람들과 설악을 이어주는 매개는 봉정암의 사

설악의 면면 8년간 앵글에 담아 한지로 프린팅... 회화 보는 듯 ‘봉정암 뒤로 세우는 케이블카 진신사리탑 기도 의미 퇴색시켜’

리탑이다. 봉정암에서는 설악의 아름다움을 무한으로 변모하는 순간을 목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작가의 작품은 사진을 ‘찍는다’는 말보다 ‘그린다’는 말이 어울린다. 이는 사진의 프린팅을 인화지가 아닌 한지에 하기 때문이다. 매끄러운 평면의 인화지에서 만날 수 없는 회화적 요소가 한지

와 그 안의 종이 물결들로 인해 만들어진다. 사진이 아닌 한 폭의 진경산수화를 감상하는 느낌이다.

또한 한지를 구겨내 평면의 사진을 입체화 한 설치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단순한 사진에서는 만날 수 없는 양감이 풍부하게 느껴진다. 이 역시 인화지 아닌 한지에 프린팅을 했기에 가능했다.

임 작가는 ‘인터뷰- 설악산’ 전시를 올 가을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급히 일정을 앞당겼다.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8년간 100회 이상을 설악에 올랐던 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봉정암 사리탑 너머에 케이블카가 설치되기 전에 설악의 아름다움을 대중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기도 했다.

임 작가는 “오색케이블카는 봉정암 사리탑 뒤편으로 건설된다”면서 “봉정암에 오는 불자와 국민들은 진신사리탑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 케이블카 건설되면 사리탑이 아닌 케이블카와 승객들에게 기도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케이블카 건립은 정부

가 설악산을 관광지지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설악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02)733-1981 **신성민 기자**



임채욱 작가의 사진작품 봉정암 부처바위. 전시회에서는 한지로 프린팅해 입체적으로 조성했다.

국립경주박물관 日 '고훈문화' 특별전 오는 2월 21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이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오는 2월 21일까지 일본의 고훈(古墳)시대를 조망하는 특별전 ‘일본의 고훈문화’를 개최한다. 일본 국립박물관의 특별협력으로 이뤄진 이번 전시회는 일본 내 9개 기관에서 출품한 380점의 문화재가 전시한다.

이 가운데 일본의 국보가 29점, 중요문화재가 197점이다. 아울러 당시 한일교류의 일면을 보여주는 우리 문화재 20점이 비교자료로서 함께 선보인다.

‘고훈’은 일본어로 ‘옛무덤’을 뜻하지만, 일본 고고학에서 ‘고훈’은 고대에 조성된 대형 무덤을 가리킨다.

이번 전시회는 고훈시대를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국내 첫 특별전으로서, 고훈시대의 대표적 유적과 그곳에서 발견된 출토품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히미코(卑彌呼)의 유산, 고훈의 등장: 고훈시대 전기 △대형 무덤과 하니와의 세계: 고훈시대 중기 △사리구덩이: 고훈시대 후기 등 3부로 구성된다. (054)740-7500 **신성민 기자**

Buddhists of The World King (사)세계불교법왕청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정기 각료회의의 소집공고



종교법인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사단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 세계불교법왕청.com

韓國佛敎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宗團 人權委員會,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敎 宗團 總聯合協議會, 世界佛敎 考試委員會, 大韓佛敎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元老老老團, 韓國佛敎 高僧長老團.

국제불교법왕청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각료 회의 소집 공고

정기 각료 회의 2016년 1월 21일 이전에 임명되었던 모든 각료는 모두 참석해 주시므로 새해 주요 안건 심의와 정책 안건 검토를 할 것이며 그동안 각료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회의를 계속 불참하는 각료들은 1월 정기총회에서 각료로서의 인성, 인격, 인품, 참여도, 출석률 등을 심의 의결 후 재정비 차원의 임명장 회수 및 명단과 사진을 기재하여 해임사실을 신문지상에 공지할 것입니다.

■ 일시 : 2016년 1월 21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미안마문화원

세계불교도들의 법왕 우꾸마라 사야도 보좌 기획관리 장로 목탁 합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 세계불교 포교와 봉사로 지구촌 구석구석 인간방생, 증생교화에 헌신할 인재를 기다립니다. 인간다운 인간 승려다운 승려이면 환영합니다.